

교육사업팀은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수송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교사 배성호)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수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여성사 전시관 관람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이들은 이 수업 프로젝트를 통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감수성을 담아 갈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사 전시관을 관람하고

글 · 김은지 서울수송초등학교 6학년

지금으로부터 조금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남자가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역사책을 읽다가도 문득 “왜 여자는 한명도 없지?” 하는 물음이 나올 만큼 남자는 역사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곳 ‘여성전시관’에서 진실한 웃음을 머금은 여성을 찾아보았다. 남자, 여자가 차별을 받던 그 때에도 여성의 권리를 외쳤던 사람들! 그 후엔 진실한 웃음이 뒤따른다.

이 전시관에서의 목적은 진실하게 웃는 ‘여성’을 찾는 것이었다. 전시된 것 들은 물론 모두가 다 여자들의 역사였지만, 나 역시 진실하게 웃고 있는 여성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온갖 박대와 멸시 속에 살면서도 꾀꾀이 뒷바라지하며 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갔다 해도 모자람이 없다. 남자는 여자를 무시했고, 심지어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 여성도 한 부류의 인간이라는, 여성의 권리를 처참히 짓밟았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과거의 성차별은 매우 심했다.

전시관 내부는 모두 여성들의 역사로 꾸며져 있었다. 전시관의 전체적인 느낌이 매우 ‘여자’ 같았다. 박물관의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본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직업을 알아맞히는 게임을 통해 긴장 해소는 물론 관람 내용의 감을 잡게 해주셨다. 팀별로 모여 설명을 듣고 <한국여성운동 100년사>라는 영상을 보았다. 영상은 교육을 통해 평등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여성들이 불평등한 제도와 맞서 싸워 이기는 모습을 담은 내용이었다. 마지막에 어린이는 해맑은 미래의 여성을 나타내며



웃어주었다. 이 영상이 남자들에게 지루했을 수 있었으니 나 같은 여자 친구들은 다시 한 번 자랑스러운 여성의 권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영상을 보고 났으니, 이제 본격적인 관람에 참여했다. 여성들 중 특정한 직업에 가장 먼저 도전하신 분들과, 여러 여자들만의 소품들을 보며 놀랐다. 와, 우리 여성은 자랑스러운 분들이구나, 나도 부끄럽지 않는 여성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모두가 모여 60년 동안 여성의 모습을 표현해 보았다. 우리 노란팀은 활주로를 표현했고, 최초 여자 비행사 '박경원' 님의 모습을 표현, 내가 느낌을 말할 때, 죽는 시간까지도 웃고 있었던 진실한 웃음을 찾아 스칼렛을 돕고 막강 도우미로써의 역할을 했다.

관람 후에는 잠깐 자유시간이 주어졌다가 점심을 5층에서 먹고, 다시 한 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의 인구 증가, 연표 등 비닐봉지로 여자의 뺨은 머리를 표현한 것과 함께 풋사과랑 이름의 작품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아직 여성의 역사는 풋사과다' 라는 뜻이고, 빨갛고 맛있게 익어가는 여성을 매우 독특하게 비유했다.

내가 여성사 전시관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배운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남녀평등 세상에서 여성의 권리를 누리며 풋사과처럼 진실하게 웃는 방법이다. *소피*